

일본동맹그리스도교단 선교 105주년 기념대회 요코하마선언

--21세기의 일본과 아시아와 세계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일본동맹그리스도교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선교 105 주년의 이 기념스러운 때에, 초기의 선교사들의 영적유산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가운데 새기이 온, 교단선교의 「어제」, 「오늘」, 「내일」을 되살펴보며, 21세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존전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1. 일본동맹그리스도교단의 발걸음은, 프레드릭 프란손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미국 시카고에서 설립된 「북미 스칸디나비아 동맹 선교」로부터 일본에 파송된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남녀 15명의 선교사들이 요코하마에 상륙한 때 (1891년 · 메이지 24년 11월 23일)로부터 개시되었습니다.
2. 선교사들이 일본에 온 그 시대는, 복음선교에 대해 반드시 호기(好機)라고는 말할수가 없었습니다. 「대일본제국 헌법」 발표 (1889년 · 메이지 22년), 「교육칙어발령」 (1890년 · 메이지 23년) 등 메이지 국가의 기축(基軸)이 놓여지고, 서양사상배척이며 민족 회귀사상이 강화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열의에 불타올랐던 선교사들은 그때까지 다른 교파가 밟지 않은 「이즈반도」(伊豆半島), 「보소반도」(房總半島), 「이즈7도」(伊豆七島), 「히다」(飛騨), 「아이누인지역」 등 일본각지의 미전도 지역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당시의 미전도지역 전도는 수많은 곤란과 박해가 동반하는, 생사를 건 선교이었으며, 강한 신앙과 인내를 요구하고, 선교의 기반을 놓기까지는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허다한 시련을 넘어서고 곤란을 잘 참아내며, 전도와 봉사의 사역에 노력하여, 각지에 교회의 기초를 쌓아 놓았습니다. 「일본동맹그리스도교단」은 이러한 영적유산과 선교의 기반을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3. 그 후, 선교사들의 사이에 「일서동맹그리스도협회」(日瑞同盟基督協會)의 탄생을 보았으며, 「일본동맹그리스도협회」(日本同盟基督協會: 1922년 · 다이쇼 11년)가 형성되었습니다. 전시하에는, 「종교단체법」의 실시 에 뒤따라, 「일본 그리스도교단」(日本基督教團: 1941년 · 쇼와 16년) 설립시에, 제8부에 합동하였습니다. 전후 그일부의 교회는 일본그리스도교단으로부터의 이탈을 결의하고, 새롭게 「일본동맹그리스도교단」(日本同盟基督教團: 1949년 · 쇼와 24년)을 결성하였습니다.
4. 되돌아보면, 전시하, 특히 「15년 전쟁」기간, 우리 교단은 국가신도(國家神道)를 천황을 현인신으로 하는 우상문제로서 거부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례로서 받아들여, 「너는 나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제일, 제이 계명을 지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더우기, 이웃 여러나라의 여러 교회들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

어 내는 자로서 살지 못하고, 국가가 추진한 식민지 지배며 전쟁에 가담하고, 아시아지역의 침략에 협력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과 이웃앞에서, 특히 아시아의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의 강요와 침략의 죄를 범하였고, 나아가 전후(戰後)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회개함이 없이 무자각한 채 그 대부분을 지내 왔습니다. 근대일본의 100여년의 역사와 중복되는 우리 교단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우리 교직자·신도는 「신앙과 생활의 유일 절대의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순복하여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을 주의 존전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바입니다. 우리는 새로이, 굳게 성서신앙의 원리에 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내실을 동반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변혁되어갈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5. 우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둔 역사적인 시점에 즈음하여, 전전·전후의 선교사들의 「세계적 시야에 선 선교」, 「희생을 아까워하지않는 구령의 정열」, 「교파 형성에 치우치지 않는 선교협력」이라고 하는 뛰어난 영적 유산을 계승해온 영광을 기억합니다. 그 배후에 있었던 프란손 선교사의 모-토, 「그리스도와 의 항구적, 자각적, 친밀한 사귄」(Constant, Conscious, Communion with Jesus Christ)에 나타난 바, 경건한 신앙자세를 깊이 마음속에 아로 새기고자 합니다. 나아가, 초기선교사들이 용감히 미전도 지역을 지향한 선교정신을 계승할 것을 결의합니다.

6. 선교 105년을 되돌아 보면, 우리 교단의 사명과 그 존립은 복음선교를 위해 과감히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교회가 일치·협력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대망을 가지고 살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결한 생활을 지향하고, 세상 끝날까지 전 세계에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국내선교에 있어서는, 국가가 다시금 위험한 길을 내딛기 시작한 오늘날,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은 파숫군의 사명을 자각하면서, 「1억2천만선교」에 힘쓰고, 국외선교에 있어서는, 전세계의 여러나라, 여러 민족간의 분열과 혼미와 곤궁의 시대에 있어 「마케도니아의 부르짖음」을 귀담아 들으며, 세계선교의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교단내의 조직과 기관을 재점검하고 활성화하여, 개인, 가정, 교회, 교단의 선교체제를 더욱 정비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21세기의 선교를 향한 기도는, 일본과 아시아와, 세계에 눈길을 돌리며, 전세계의 하나님의 백성과 복음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며, 희생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복음선교에 불타오르는 무리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일본동맹그리스도교단의 교직자·신도는, 성부이신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과 성령의 존전에서 새로운 전진을 도모할 것을 결의하며,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은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 24:14)

1996. 11.19 선교 21 요코하마

(訳·金 煥)